

“전 세계 성장둔화...재정지출 확대로 경기 보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문 대통령,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 소집...“불용 예산 줄여야” “민간활력 높여야 경제 힘내...기업투자 지원·규제혁신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투자 확대를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품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부처 간 협업강화가 필수”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간 협업이 소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에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기업이 적극 협력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이 총리,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

28일 김항식 기록 경신...재임기간 대선주자 부각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갖게 된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오는 28일이면 ‘재임 881일’ (2년 4개월 27일)을 맞는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으로,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항식 전 국무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 기록을 깨는 것이다. 다음달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들어

서는 반환적인 만큼 이 총리가 현 정부 전반기를 짝 채워 일한 셈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책임 총리’, ‘일하는 내각’을 내세우며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을 강조해왔다. ‘내각의 균기반장’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부처별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촌철살인으로 받아치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 등이 부각되면서 호평을 얻었고 현재는 여권 대선주자 선호



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총선 투입데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연말·연초까지 이 총리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해 이 총리가 적당한 시점에 당으로 복귀해 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총선 등판론’이 여전히 거론된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후임 총리인 사청문화가 총선 국면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가 내각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강병운 기자

여야, 대검 국감장서 조국 수사·검찰개혁 난타전

윤석열 국감 출석...“국민 뜻 받들어 과감한 개혁 실행”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 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 되는 17일 국감에서 여야의 ‘조국 공방’ 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인섭 한국형 사정책임연구원의 참석을 계기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조 전 장관 문제가 이날 국감의 화두가 됐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또 특수부 폐지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에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한-아세안 열차’ 참가자들이 17일 오후 순천만습지에 도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사들 유적지 답사

사흘간 광주·순천·경주·부산 찾아 ‘변영·평화’ 메시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40일을 맞아 한국과 아세안의 청년들과 각계 인사 200여명이 17일 ‘한-아세안 열차’를 타고 광주와 순천을 방문했다. 올해 방문의 해를 맞은 순천에서는 세계 5대 연안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습지를 찾아 습지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모범사례를 체험했다. 광주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전 : 아세안의

빛, 하나의 공동체’를 관람했다. 오는 24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를 앞두고 개막하는 이번 전시는 아세안 10개국의 공동 문화요소인 물, 빛, 풍동, 패브릭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로서 한-아세안의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라남도 아세안 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천년고도 경주를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서 신라 문

화를 체험했다. 이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변영의 밤’ 행사에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광주·순천·부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 후 1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변영을 기원하는 해단식을 갖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이 지난 30년의 한-아세안 관계를 축하하고 함께 하는 새로운 30년의 변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강병운 기자

장성토지 (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장성댐사이)
국도도로 12m접 (앞면30m)

- ① 매매가 시세 10억 (1080평) → 7억 5천
- ② 평수(230평, 매매가 1억6천) →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추천 물건

- ① 장성은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9천5백만
- ②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16억5천만
- ③ 장성필암리(답)925평 → 매매가2억9천만
- ④ 담양읍메타세쿼이아도로접(1470평) → 매매가18억2천만
- ⑤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15억9천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전문]

- ① 특수반 모집(매주 개강)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 ② 기초반 모집 (기초이론+실전) ◎ 무료반 병행실시
- ③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
- ④ 경매투자 연30%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 시 연 15% 가능

대신경매 010-4667-9820

경매물건 (추천)

아파트 - 서구 지평동 - 건물 51평 - 감정가 6억6천만 - 최저가 5억6천만	아파트 - 북구 일곡동 - 건물 18평 - 감정가 1억6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주택 - 동구 학동 - 토지 52평 - 감정가 1억7천만 - 최저가 1억7천만	주택 - 남구 백운동 - 건물 74평 - 감정가 3억1백만 - 최저가 2억1천만
근린주택 - 원주시 남이면 - 건물 216평 - 감정가 12억1천만 - 최저가 4억9천만	근린주택 - 밀양시 구천리 - 건물 323평 - 감정가 11억4천만 - 최저가 5억8천만	다가구(월물) - 서구 금호동 - 건물 113평 - 감정가 6억4천만 - 최저가 4억4천만	다가구(월물) - 화성시 병정동 - 건물 145평 - 감정가 19억2천만 - 최저가 4억9천만
근린시설 (상가건물) - 송북 충주시 수안보면 - 건물 1826㎡ - 감정가 12억9천만 - 최저가 5억2천만	근린시설 (건물) - 진주시 동성동 - 건물 1086.48㎡ - 감정가 20억5천만 - 최저가 6억7천만	근린상가 - 서구 지평동 - 건물 64.8㎡ - 감정가 6억 - 최저가 2억7천만	근린상가 - 북구 삼각동 - 건물 149.772㎡ - 감정가 4억1천만 - 최저가 2억2천만
숙박시설 - 강화군 하점면 - 건물 3502.11㎡ - 감정가 27억9천만 - 최저가 3억2천만	숙박시설 (무인텔) - 보은군 보은읍 - 건물 2228.52㎡ - 감정가 25억3천만 - 최저가 6억6천만	숙박시설 (무인텔) - 전남 함평 학교면 - 건물 2025㎡ - 감정가 25억3천만 - 최저가 9억	숙박시설 (모텔) - 충남 아산시 음봉면 - 건물 2308.03㎡ - 감정가 24억1천만 - 최저가 5억7천만
토지 (잡종지) - 남구 송학동 - 지분 5481㎡ - 감정가 18억1천만 - 최저가 12억6천만	아파트 (19개동) - 홍성군 관천읍 - 건물 923.02㎡ - 감정가 19억1천만 - 최저가 4억5천만	공장 - 화성시 우정면 - 건물 1754.75㎡ - 감정가 19억9천만 - 최저가 6천8백만	근린시설 - 광안시 중동 - 건물 477.82㎡ - 감정가 10억3천 - 최저가 5억7천만

<매매 및 임대>

용봉동 원룸 매매 - 총 15개 - 월수입500만원 - 매매가 7억2천만원	치평동 상가6층, 80평 - 총 15개 - 월수입500만원 - 매매가 1억8천만원	광산구 산정동 (부동산사무살코너) - 총 3개 - 월수입200만원 - 매매가 3억2천만원	쌍안동 상가 (10층, 24평) - 총 5개 - 월수입400만원 - 매매가 7억7천만원
-----------------------------------------------------------	---------------------------------------------------------------	-------------------------------------------------------------------	------------------------------------------------------------------

010-6670-9800

- ◆ 이외 일반 물건, 특수물건 다량 있음
- ◆ 경매교육 기초반, 특수반 모집 중